



보도 일시	2022. 9. 30.(금) 09:00	배포 일시	2022. 9. 30.(금) 07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 <총괄>	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	책임자	과 장 이상규 (044-215-8720)
		담당자	사무관 최봉석 (bongseokchoi@korea.kr)

추경호 부총리, 2022년 아시아개발은행(ADB) 연차총회

참석 및 현지 차기 총회 개최국 행사 개최 결과

- 거버너 연설을 통해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①지식·해결책 지원, ②다양한 금융수단 활성화, ③역내 경제 협력과 통합 강조
- 2023년 한국의 연차총회 개최(인천 송도) 관련 성공적 홍보행사 추진

□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.28(수)~9.29(목)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2년 제55차 아시아개발은행*(ADB) 연차총회에 참석하였다.

* Asian Development Bank : 아시아·태평양 개도국의 경제·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(총 68개 회원국)

* 우리나라는 1966년 가입한 창립회원국으로 지분을 5.03%(8위), 영구이사국 수임 중

- “코로나19 이후 기후 회복력 있는 녹색경제 자리 잡기*”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, 금년 의장국인 스리랑카 대통령 겸 재무장관을 포함한 68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, 각국 재무장관·중앙은행 총재 등이 다수 참석하였다.

* Positioning Climate Resilient Green Economy for the Post COVID-19 World

□ ADB는 이번 총회를 통해 2021년 연차보고서, 연간 재무제표 및 2022년 예산안 등 ADB 운영을 위한 주요 안건들을 최종 승인하였으며,

- 추 부총리를 포함한 각국 대표들은 거버너 연설을 통해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과 향후 ADB의 역할 등에 대한 제언을 공유하였다.

□ 추 부총리는 거버너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역내 개발협력 증진을 위해 ADB와 한국이 중점을 두어야 할 3가지 정책방향을 강조하였다.

○ 첫째, 역내 지속가능 성장은 물리적 인프라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지식(knowledge)과 해결책(solution)이라는 소프트 인프라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,

- 한국도 단기간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차별화된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ADB가 지식 은행(knowledge bank)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.

○ 둘째, 코로나19 이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규모 개발 재원은 기존 공공 중심의 자원 조달이나 무상원조나 차관과 같은 기존 금융 방식으로는 충족이 곤란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,

- ADB가 2030년까지 기후금융 지원 목표 1,0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금융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, 보증과 같은 새로운 개발 금융 수단의 도입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○ 마지막으로, 지난 2년 코로나19로 위축된 역내 경제협력과 통합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를 역설하면서,

- 한국도 차기 ADB 연차총회* 개최국으로서, ADB와의 협력을 통해 내년 연차총회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.

* 제56차 ADB 연차총회('23.5.2~5, 인천 송도)

□ 한편, 이번 총회에서 한국정부는 추 부총리, 아사카와 ADB 총재 등 주요 인사와 각국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총회 개최국 행사(Future Host Country Event)를 개최하였다.

○ 추 부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'70년 서울, '04년 제주에 이어 한국(인천)에서 3번째로 개최되는 '23년 ADB 연차총회가 “재도약하는 아시아: 회복, 재연결, 개혁”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,

* Rebounding Asia : Recover, Reconnect, and Reform

-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(Recover)하고 회원국들이 다시 긴밀히 연결(Reconnect)되어 새로운 정책 개혁(Reform) 방안을 마련하는 “아시아 재도약(Rebounding)의 장(場)”이 되도록 총회를 적극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○ 아사카와 ADB 총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대면행사로 개최되는 내년 총회가 역내 경제의 회복을 위한 회원국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, 내년 총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.

- 또한, ADB 수원국을 졸업('88년)하여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독보적인 발전 경험은 물론, 최근 전 세계적 사랑을 받는 K-POP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회원국들이 총회 계기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.

□ 추 부총리는 이번 ADB 연차총회에서 스리랑카를 이어 차기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, 내년 5월 한국(인천 송도)에서 개최될 2023년 제56차 ADB 연차총회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.

* 의장국 : 한국, 부의장국 : 캐나다(선진국), 우즈베키스탄(개도국)

담당부서 <총괄>	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	책임자	과 장 이상규 (044-215-8720)
		담당자	사무관 최봉석 (bongseokchoi@korea.kr)
	ADB 연차총회준비기획단 총회기획팀	책임자	팀 장 박은결 (044-330-1550)
		담당자	사무관 이수호 (suholee90@korea.kr)